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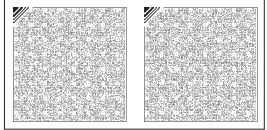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51호

2013년 12월

HEADLINE

뉴스 2P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특집 12~13P

‘제26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인물 14P

다락방을 벗어나 세상을 마주하다

국제 18P

만델라 추모식 가짜 수화통역사 논란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자질 향상 자리 마련

‘2013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



‘2013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에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김광환 중앙센터장과 광역센터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기술지원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센터 산하에 17개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가 있다. 워크숍에서는 전국 300여명의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중앙센터 김광환 센터장의 ‘편의시설의 위상’, 보건복지부 이주현 서기관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및 방향’,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의 ‘장애인 이해하기’, 한국성공컨설팅연구소 강석동 소장의 ‘자기관리와 관계형성’, 사단법인 굿하트 김성국 대표이사 ‘사회복지 회계실무’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 후에는 편의증진사 모의시험이 치러졌다.

중앙센터 김광환 센터장은 이날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들에게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들은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며 “장애인들의 사회참

여와 자립생활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센터 이운용 처장, 충북센터 나상진 팀장, 충남센터 우인숙 팀장 등 3명이 장애인편의증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부산센터 이우영 과장, 대구동구센터 이유미 팀장, 대전대덕구센터 이동률 팀장, 강원센터 마익준 부장, 전북 김제시센터 김아영 팀장 등 5명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중앙센터장 표창을 받았다.

‘제26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개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2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는 장애인 예술인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장협이 지난 198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예술축제이다.

음악, 미술, 글짓기, 사진 등 4개 부문에 걸쳐 치러진 올해 예술제에는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가해 예술적 재능을 뽐냈다.

음악 부문은 예술제 당일 경연이 펼쳐졌으며 미술, 글짓기, 사진 부문은 사전 작품 공모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전체대상’은 글짓기 부문 이미숙(보령변장애 2급, 40세) 씨가 수상했다. 이 씨는 자신이 장애를 인정하고 세상에 나오기까지 느꼈던 감정의 변화들을 수기에 담았다.

경북 영천에서 온 이 씨는 “시상식장인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왔는데 오늘 기차를 처음 타봤다”며 “상도 타고 처음으로 기차여행도 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17명이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여건은 열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장애인예술인도 많다”며 “이러한 현실을 바꿔나가기에 지장협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12~13면에 계속〉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기초연금법 추진 · 3대 비급여 개선 의지 밝혀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 2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받고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문 장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심사심의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개발연구원 재직·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문 장관을 복지 및 연금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복지 분야의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라 밝힌바 있다.

문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연금법의 시행은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삶의 질과 가족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장관은 청문회 등 임명 과정에서 체납했던 세금을 장관 내정 후 납부하고 지난 5년 동안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문 장관 취임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가 국민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자질이 부족한 문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것이라며 문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장애인연금 확대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사업 가운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청이 12월 4일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8000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부문에

걸쳐 '2013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2013년 사회조사'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꼽은 장애인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18.7%),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1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96.9%, 비장애인은 94.0%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한다고 답변한 장애인은 67.5%, 비장애인은 65.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 오락가락 진술 이제 없다

법무부, 1년 준비 끝에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과 아동을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한 제도이다.

외국에서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노르웨이에서 시행 중이며 뉴질랜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피해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으로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장애인과 아동들의 오락가락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의의와 기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06년 도가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승희 검사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지적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숫자 개념에 취약해 날짜나 시간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니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의사소통과 표현이 미숙하고 낮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국민수사차관은 이날 진술조력인들에게 “앞으로 수행할 역할을 사소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활동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정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51호 2013년 12월 26일

회장 · 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오창석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발의

청각장애인 권리 · 수화언어 언어지위 보장

청각장애인의 권리와 수화언어의 언어지위 보장 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1월 26일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진후 의원과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지난 5월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7개월동안 정책간담회, 공청회 등 회의를 거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소속 수화언어심의회 설치, 수화언어문화원 설치, 수화언어의 ‘초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의 기본이념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의 편입을 통한 비장애인의 수화언어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화언어 표준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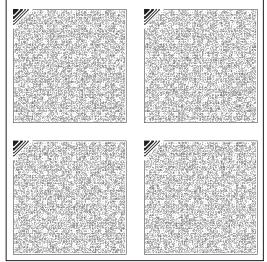
수화언어 통역 및 문자통역,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발굴 육성, 수화언어 관련 법안 · 단체

에 대한 예산 지원 등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법안 제출에 앞서 수화언어권공대위와 국회 정

소리로 읽는 새보람



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기본이념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후 의원은 “수화언어 기본법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수화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送年辭

“한 해를 마무리하며...”

존경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입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이맘때면 우리 모두는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 앞에 경건하고 숙연해지곤 합니다.

잠으로 다사다난했던 계사년(癸巳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의 서풍을 안고 다가오는 갑오년(甲午年)을 위해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들을 차분한 마음으로 정돈해보아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회를 느끼며 벅찬 희망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으로 취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을 통해 우리 협회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참신한 활력을 불어넣고자 나름대로 발로 뛰면서 혼신을 다해 일해 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500만 장애인 동지와 지장협 가족 여러분께서 장애인복지와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함께 해준 덕분에 큰 과오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계획했던 사업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열악하고 위축되어가는 복지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어느 정도 알찬 성과를 거둔 보람된 한 해가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성찰과 반성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언제 어느 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도전과 변화를 요구받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대응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의식과 조직의 문화도 혁신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회생과 숭선수범하는 정신을 발휘하여 각자가 맡은 업무에 1인자가 되어야만 우리 협회가 생존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주인은 500만 장애인동지를 비롯한 지장협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주인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협회를 경쟁력과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시킨다면 여러분의 자긍심은 물론 그에 따른 행복지수도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화합된 모습으로 맑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발전과 우리 협회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애인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척박하고 열악한 장애인복지 환경을 한 마음으로 가꾸어 장애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올 한 해 동안 혹여 오해와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 함께 희망의 새해를 기쁘게 맞이합시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장애인복지의 신세제를 건설 하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 12. 23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광환



개별환경 고려해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정부기관에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부 기관에 전달했다.

인권위가 장애인들에게 주거 공간, 자립정착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정보를 설명한 후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결과 62.1%가 자립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되지 않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을 설명한 후 같은 질문을 하자 53.4%만이 자립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사회적 지원 정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지역 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 주거·소득·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에 기반을 둔 정책과 제도, 법률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 수립·실행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상적 활동 보장, 장애

인 소득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1년과 2012년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작성 TFT'를 운영, 각종 간담회를 통해 이번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장애학생 10명 中 4명 희망직업 없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화된 진로정보 확대 필요”

장애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희망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4월 중등단계 156개 특수학교 학생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최근 발간한 '2013 진로정보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0.8%(316명)가 '희망직업이 있다'고 밝힌 반면 39.2%(204명)는 '희망직업이

없다'고 답변했다.

희망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장래 희망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39.2%로 가장 많았다.

'나의 흥미와 능력을 알지 못해서' (18.9%), '장래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17.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진로·직업정보센터장

은 “장애학생들은 ‘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인식이 낮고 자신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화된 학교 진로지도와 종합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진로교육의 소외계층인 장애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키워 주는 진로정보

와 진로지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 78.1%(58명), 정서·행동장애 76.0%(19명), 기타장애 66.7%(12명), 지체장애 59.8%(61명), 정신지체 56.8%(104명), 청각장애 52.3%(57명)가 각각 희망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운동

선수로 조사됐고 바리스타, 안마사, 요리사, 제과제빵사, 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2월 2일 서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세미나'를 개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 생성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폭 확대

예산 63억원 반영...사업지역 및 수혜대상자 늘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예산에 올해보다 38억원 많은 63억원을 반영하고 사업지역과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사업지역은 현재 20개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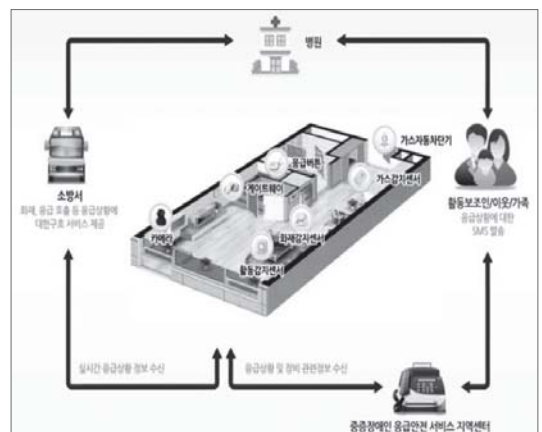
서 80개 지역으로, 수혜대상자는 21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화재·가스사고 등 생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구급, 구조 등의 응급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활동감지 센서, 통신

장치 등을 설치하고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센서가 작동해 응급정보가 소방서와 지역센터로 전송되며 정보를 전송받은 소방서와 지역센터는 신속하게 구조, 구급 등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시스템. (자료 : 기획재정부)

장애인 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 열려

활동가 5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받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진정한 사회통합, 권익옹호를 위해 힘써온 활동가에게 수여되는 '장애인 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이 12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올해 '장애인 복지대상 활동가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현기 소장,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현수 대표,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경남협회 강용순 회장, 한국척수협회 경북협회 권영수 대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진경 간사 등 5명에게 돌아갔다.

최현기 소장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벌이며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사회의 당당한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현수 대표는 중증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환경 조성, 장애인복지 정책 개발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장애인 복지대상 활동가상' 수상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혜진 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강용순 회장은 산재장애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며 이들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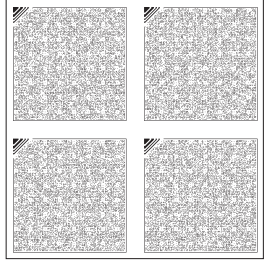
노력해왔다.

권영수 대리는 중증장애인의 예도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스포츠를 즐기는 등 지역사회와 더

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간사는 아태지역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형성과 아태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어인연합 출범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당사자단체의 국제적 연대와 관계형성에 중심 역할을 해왔다.

매년 '장애인 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완배 상임대표는 대회사로 통해 "장애인 관련 행정조직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보면 관료적이고 권위적이며 시혜와 동정, 격리와 보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는 수많은 차별을 제거하지 못하고 권리에 기반한 대등한 환경은 아직도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활동가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활동가분들로 인해 장애인의 삶이 변화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들, 내년 지방선거 참여 의지 높아

장애인 당사자의 정계 진출에도 긍정적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유권자 551명의 정치의식과 정치성향을 조사한 결과 80.8%가 내년

민선6기 지방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 때 전국 투표율이 54.5%였던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유권자들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계진출에 대해서는 73.8%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장애계를 대표해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진출한 장애

인 당사자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개선, 각종 법률의 제·개정 등 장애에 현안 해결에 있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의

55.9%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장애인의 정계진출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애인유권자들이 지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사항은 정책공약(44.2%), 인품·능력(19.3%)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TV 및 라디오(53.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선거공보물(19.4%), 각종 토론회(12.5%) 등이 뒤를 이었다.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보급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으로부터 정보취약계층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

다고 11월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국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각장애인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경찰청,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아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불법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송금요류를 빙자한 금전요구, 불법사이트(악성코드)

를 이용한 파밍, 유료방송 무료 이벤트 후 자동 유료전환·요금 청구 등의 사례와 예방법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매뉴얼을 책자, CD,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보급하고 방통위 홈페이지, 방송통신 이용자전용홈페이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받아 매

뉴얼을 송부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기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디자인상 수상한 점자 스캔 반지

건국대 정용 학생,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대상 수상

건국대학교 학생이 개발한 장애인용 점자 스캔 반지가 미국의 대표적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Spark Design Awards)'에서 '컨셉 디자인(Concept Design)'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은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디자인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정용 학생(26세)의 '아이링(Eye Ring)'.

'아이링'은 시각장애인이 손에 끼고 다니는 책을 읽을 때 글자 위에 갖다 대면 점자로 변환해주는 반지로 휴대가 쉽고 사용이 편리해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 학생은 "평소 많은 책을 읽을 기회가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반지형태의 점자 스캐너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지처럼 끼고 다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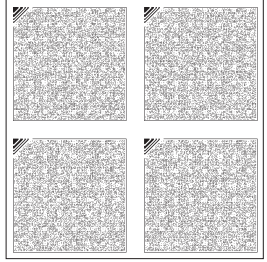
책이나 글자를 읽을 때 '아이링'을 손가락 끝에 맞춰 낀 다음 글자 위에 올려놓으면 글자를 지날 때 마다 반지 안쪽에서 점자가 나와 손가락으로 전달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링'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리는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t Design Award)'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the Best)' 상을 수상한바 있다.



'2013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에서 '컨셉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건국대 정용 학생.

소리로 읽는 새보람



LG유플러스,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

U+TV 통해 배리어프리 영화 서비스도 검토

LG유플러스가 예비사회적기업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지상파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한 U+TV 고객 한 명당 1천원이 적립되는 형식으로 영화 제작 기금을 마련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넣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월 제작 후원할 영화를 선정하고 재능기부로 참여할 감독과 배우를 섭외해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작된 영화는 시·청각장애인 및 고객 초청 시사회를 통해 상영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김준형 IPTV사업담당은 "한 해 동안 U+TV를 사랑해 주신 고객들께 보답하고자 고객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기획했다"며 "향후 U+TV를 통해 배리어프리영화를 서비스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칼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박미연 과장

운명을 바꾸는 힘, 기부!

신동아 11월호 피플칼럼에서 영화 '관상'의 자문가 김용남 씨는 "타고난 관상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은 없지만 수행과 자선을 통해 운명을 개선했을 수 있다"며 "관상이란 겉으로 표현한 적 없고 본인도 모르는 그 사람의 내면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얼굴 생김새는 관상의 일부로 성형으로는 인상을 바꿀 뿐이고 인상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관상을 거스르는 인생은 없는 것일까?

김 씨는 "관상은 진리이나

운명은 그릇이고 타고난 그릇을 얼마나 채우느냐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달린 일"이라며 "귀인이나 부자 관상을 타고났는데도 그리 안 되는 것은 자기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수 김장훈 씨는 의협심이 매우 강한 상이지 100억원 이상을 벌 부자 상은 아닌데 베풀는 대로 기부하다보니 100억원을 기부하게 됐다"며 "배운 만큼 들어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제1의 부자로 200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던 이탈리아의 메디치를 제치고 우리나라 경주 최 씨는 무려 300

년 동안 만석 이상의 부를 유지한 12대 만석꾼이며 9대 진사를 배출한 집안이다.

최 씨 집안이 오랜 기간 만석꾼 살림과 명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의 풍상을 이겨 낸 빛나는 정신 유산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중 하나가 '배우는 삶'에 대한 실천이다.

"재물은 풍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골고루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올해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경향은 2011년 36.4%, 2013년에는 1.8%가



감소된 34.6%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기부할 의향이 있는 국민은 2011년 45.8%에서 2013년에는 2.6%가 증가된 48.4%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54.2%)'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19.6%)',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17.2%)' 등이 필요하

고 응답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부유해지길 원한다.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움켜쥐길 원한다. 그러다보니 정신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을 위해 작은 것부터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오고 오는 세대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개최

강의 통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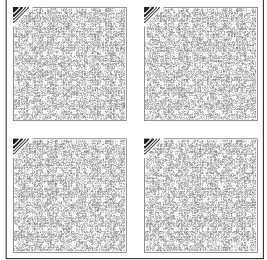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2013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교육과 토

론 등에 참여하며 시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지장협 김광환 중앙

소리로 읽는 새보람



회장이 ‘장애인 복지 종사자로서의 자세’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의 ‘사회적 기업과 직업재활시설’, 한국HS교육원 김상태 대표의 ‘생산물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강의를 통해 “과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모델을 답습하기 보다는 이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변화를 주도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무자들이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부부 5쌍 축복 속 화촉

‘제22회 인천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11월 22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린 5쌍의 부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박창영, 이하 인천협회)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부부 지원에 나섰다.

인천협회는 11월 22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제22회 인천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을 개최했다.

이날은 인천협회 박창영 회장, 인천광역시의회 박순남 의원, 인천시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등을 비롯한 300여명의 축복 속에 장애인 부부 5쌍이 화촉을 밝혔다.

결혼식을 올린 최숙자(38세) 씨는 “20년 전 장애인인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웨딩드레스는 입지 못했다”며 “오늘 웨딩드레스를 입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광주 장애인 단체 종사자 한 자리에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재홍, 이하 광주협회)는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 종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나주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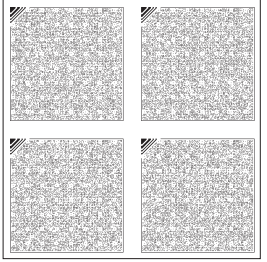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 단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광주시 윤기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재영 노

무사, 광주협회 박현중 팀장이 각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인권도시 광주’, ‘사회복지시설의 인사노무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에 대해 강의했다.

광주협회 북구지회와 남구지회의 ‘우수사업 및 특화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도 진행됐으며 장애인 단체 종사자 간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대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워크숍 열려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전지원센터(센터장 윤석연, 이하 대전센터)는 대전지역 5개구 기초센터장 및 요원과 건축사무소 실무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에서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광주지원센터 박현중 팀장의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한 세부설치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접근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대구센터 윤석연 센터장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힘쓰는 센터 요원들과 건축사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 대전센터가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의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대전시의회 김인식·임재인 부의장, 김명경 의원 등이 함께했다.



세종협회 정금중 협회장이 참석 내빈,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협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가져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한마당도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정금중, 이하 세종협회)가 11월 16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

했다.

이 자리에는 세종시 지체장애인 500여명과 세종시 유한식 시장, 세종시의회 유환준 의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기념식 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플보드, 플라잉디스크, 후크볼 등을 함께하며 화합을

다지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한편 세종협회 정금중 협회장은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세종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세종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 자녀 장학금 모아요”

‘1일 3색, 지장협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협회 김기호 협회장과 임직원들이 ‘나눔의 장’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협회)가 12월 11일 수원 웨딩클래스에서 ‘1일 3색, 지장협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협회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자녀들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는 ‘1일 3색’을 슬로

건으로 내건 만큼 장애인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생각의 장’, 후원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나눔의 장’, 먹거리와 공연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장학기금을 30여 장애인 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했다.

장애인편의시설경남지원센터, 직원 업무능력 강화

‘2013년 지도자대회 및 시·군실무자교육’

지체장애인편의시설경남지원센터(센터장 이상식, 이하 경남센터)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2013년 지도자전진대회 및 시·군실무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 20개 시·군 센터장과 요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의 인식제고’, ‘행정 및 회계 실무’, ‘장애인 성폭력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역량강화 교육이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참석해 ‘올바른 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

의했다.

경남센터 이상식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러 업무 가운데서도 특히 회계 분야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이 ‘2013년 지도자전진대회 및 시·군실무자교육’에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영·호남 장애인 지도자, 상생발전 다짐

시·군지회 자매결연 통해 협력 강화



영·호남 장애인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권, 이하 경북협회)는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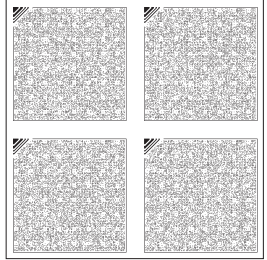
곤, 이하 전북협회)와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에서 '영·호남 장애인 지도자 교류 연찬회 및

송년 화합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한 자리에 모인 영·호남 장애인 지도자들은 장애인 복지 발전

을 위해 앞으로 더욱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시·군 민원편의증진

소리로 읽는 새보람



실무연수회'를 열고 내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협회와 전북협회는 지난 2011년 자매결연을 맺고 영·호남 지역 장애인 복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다.

경주시지회와 익산시지회, 김천시지회와 군산시지회, 안동시지회와 전주시지회, 경산시지회와 정읍시지회 등 두 협회 산하 시·군지회도 자매결연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시지회와 부산군지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전남 장애인 편의증진 방안 모색 자리 마련

'편의시설설치 전라남도민족진단 워크숍'



편의시설설치 전라남도민족진단 박경철 단장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편의시설설치 전라남도민족진단 요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

다. 편의시설설치 전라남도민족

진단(단장 박경철)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남 영암에서 '편의시설설치 전라남도민족진단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21개 시·군지회장, 편의시설센터 요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조직역량강화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전문 지식을 넓혔다.

또한 토론을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지체장애인 사회화 교육 실시

장애인 화합 도모·사회참여 기반 조성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용성, 이하 포항시지회)가 11월 12일 장애인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청룡회관에서 '지체장애인 사회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지체장애인 사회화 교육'은 장애인들의 화합 도모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교육에서는 대경대학교 김홍식 교수의 '생각

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포항시남구보건소 장은호 공중보건과의 '건강관리법', 포항시 김정미 감사멘토의 '감사행복표현'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

이날은 평소 장애인 복지향상을 힘써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또한 색소폰 공연, 각설이 한마당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져 교육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술교육 일환으로 비누 만들기 체험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지회장 여운복, 이하 담양군지회)가 장애인 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담양군지회는 12월 11일 담양읍 삼단리에 위치한 영농조합법

인 양지엔텍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담양군지회 여운복 지회장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양지엔텍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지회는 11월 26일 회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케이크·쿠키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담양군지회 회원들이 천연비누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성남장복 노후시설 개보수하고 재개관

‘Restart, 성남장복’ ...기념행사 가져



성남장복 재개관 행사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개관 15주년을 맞이한 성남 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상구, 이하 성남장복)이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재개관했다.

성남장복은 12월 10일 ‘Restart, 성남장복’을 슬로건으로 재개관 기념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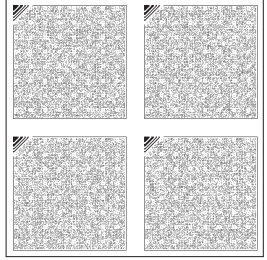
기념식에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성남시 이재명 시장,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 등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고객 250여명이 자리해 성남장복

의 재개관을 축하했다.

이날은 요리·공예 체험, 희망메시지 남기기 등 행사장을 찾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성남장복 박상구 관장은 “개보수로 좋아진 복지관 환경만큼 운영 프로그램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문경장복, 장애인 무료 의치 시술 사업 펼쳐

문경시치과의사회와 연계...2005년부터 28명 혜택



문경장복이 진행하고 있는 무료 의치 시술 사업 대상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이 문경시치과의사회(회장 김원일)와 함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

료 의치 시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경장복은 11월 초 치아결손으로 음식을 섭취에 어려움

을 겪는 장애인 2명에게 무료 의치 시술을 실시했다.

시술 대상자는 사회복지단체와 시설의 추천, 현장조사, 전문의 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시술을 받게 된 한 장애인은 “그동안 딱딱한 음식을 먹는 일이 고역이었는데 이번에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문경장복의 무료 의치 시술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28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누렸다.

괴산장복, 장애인 무료 급식 제공

괴산군 임각수 군수도 동참



괴산장복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이 11월 26일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괴산장복은 추운 겨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복지관 이용 고객 및 재가장애인 100여명

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이날은 괴산군 임각수 군수가 배식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장애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했다.

괴산장복 정효선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달성장복 · 달성군지회, 은인의 밤 행사 열어

자원봉사자 · 후원자 초청...댄스 및 노래 공연 선보여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지회장 김용환, 이하 달성군지회)는 올 한 해 동안 장애인을 위해 힘써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230여명을 초대해 ‘2013년 은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달성장복과 달성군지회 임직원들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영상에 담아

상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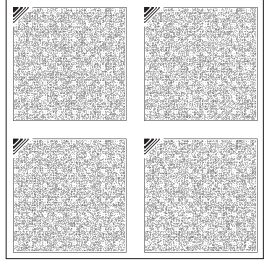
또한 댄스·노래 공연을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달성장복 정우선 관장과 달성군지회 김용환 지회장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달성장복과 달성군지회 직원들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아산장복, 장애인에 사랑의 연탄 전달

온양제일교회가 연탄 2000장 후원



온양제일교회 피스토스봉사단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이 12월 7일 온양제일교회의 지원으로 '따뜻한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아산장복은 온양제일교회로부터 사랑의 연탄 2000장을 기탁 받아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온양제일교회 피스토스봉사단 이석철 단장은 "사랑의 연탄이 재가장애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이번에 진행된 연탄나눔 행사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온양제일교회 피스토스봉사단은 9년 전부터 아산장복

에서 진행하는 이동목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남부장복, 장애인 정보화교육생 모집

내년 1월부터 운영...교육비 전액 무료



남부장복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충청남도남부장예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희, 이하 남부장복)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문서작성법, 그래픽디자인, 동영상편집, 스마트폰 사용법 등으로 학습 능력에 따라 개별 또는 소그룹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남부장복 관계자는 "정보화교육이 컴퓨터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남부장복 직업재활팀 ☎ 041-856-7071)으로 하면 된다.

자원봉사자 · 후원자 위한 음악회

유성장복, 공연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해



유성장복이 12월 13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장복)이 음악회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성장복은 12월 13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3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에는 초대 가수의 노래

공연과 뮤지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유성장복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힘겨운 삶을 마음으로 아파하며 장애인을 위해 희생하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항상 감

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성구 허태정 구청장, 유성구의회 노승연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애 ·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체험활동

'우리 함께 어깨동무'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은 11월 16일 장애 ·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우리 함께 어깨동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 함께 어깨동무'는 장애 · 비장애 아동이 체험활동을

하며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비장애 아동의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 비장애 아동 20여명은 경주 임실치즈학교를 방문해 치즈만들

기, 송아지 우유주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영천장복 이제근 관장은 "장애 · 비장애 아동 통합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리 함께 어깨동무'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6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 이모저모



12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에서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참석 내빈,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글짓기로 전제대상을 수상한 이미숙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대상을 수상한 이동현 군(음악), 양재현 씨(사진), 김영호 군(미술), 부유생 씨(글짓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의협회 이견휘 협회장이 사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용호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항현 회장이 음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상현 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지체장애인의협회 김홍수 협회장이 미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일환 씨(대리수상)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박경철 협회장이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보숙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형종 협회장이 미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태수 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우수상을 수상한 최종현·김태균 씨(사진), 강경순·김무룡 씨(글짓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변창수 협회장이 미술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백재환 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형곤 협회장이 미술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박영실 씨(대리수상)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윤석연 협회장이 음악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조경익 군, 송우연 양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술 부문 대상 수상자 김영호 군의 작품 『해적』.



사진 부문 대상 수상자 양재현 씨의 작품 『동행』.



음악 부문 대상 수상자 이동현 군의 경연 모습.

제26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자

■ 전체대상

부 문	성 명	소 속	작 품 명	비 고
글짓기	이미숙	경북지장협 영천시지회	다락방을 벗어나 세상을 마주하다	보건복지부장관상

■ 대 상

부 문	성 명	소 속	작 품 명	비 고
글짓기	부유생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바람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보건복지부장관상
미 술	김영호	충문고등학교	해 적	보건복지부장관상
사 진	양재현	경기지장협	동 행	보건복지부장관상
음 악	이동현	잠신고등학교	모차르트 바이올린 콘체르토 4번 인 디 정조 괴헬 2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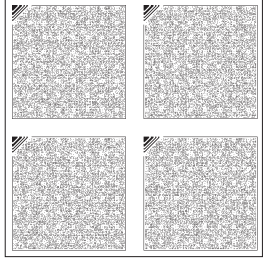
■ 최우수상

부 문	성 명	소 속	작 품 명	비 고
글짓기	성보숙	진주해광학교	내 원손	보건복지부장관상
미 술	정일환	포항장애인복지관	한시 옥당역매	보건복지부장관상
미 술	김태수	충문고등학교	좌화전	보건복지부장관상
사 진	김용호	충남지장협 아산시지회	미술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음 악	이상현	전북 군산	마우로 줄리아니 작품번호 61 그랜드오버처어	보건복지부장관상

■ 우수상

부 문	성 명	소 속	작 품 명	비 고
글짓기	김무룡	경북지장협	명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글짓기	강경순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밥주걱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미 술	박영실	전남지장협 진도군지회	봄뜰에 매화 향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미 술	백재환	경남해림학교	둘고래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사 진	김태균	한국미술협회	무슨 일 있어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사 진	최종현	꿈샘아트센터	희 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음 악	조경익	서울 강동구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음 악	송우연	인덕원중학교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1악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26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전체대상 수상작

다락방을 벗어나 세상을 마주하다

■ 이 미 숙 (뇌병변장애 2급, 40세)

감동이라는 말은 이때 참 어울리는 것 같다. 사람스런 미소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 김연아의 벤쿠버 올림픽 금메달 시상대에서의 눈물, 눈 속에서 노란 꽃을 피워내며 여름이 되기 전 별사탕 모양의 열매를 맺는 애기복수초, 천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의 수잔 보일의 노랫소리. 이 중에서 내게 가장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수잔 보일이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가던 길을 멈추어 돌아보게 만드는 천상의 목소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건 아마 사람의 목을 통해 나오는 노랫소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나도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 언제부터 말문이 막혀버렸던 걸까? 처음부터 말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 “응” 외마디가 전부 인거 같다.

마음껏 노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속삭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어릴 때 언어치료를

받았으면 말은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워 하지만 마흔이 된 나는 그저 웃기만 할 뿐 ‘정말 언어치료를 받았으면 말 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 본다.

다른 사람들이 쑥이 새이를 내고 아지랑이가 지면에서 피어오르면 봄이 온 것을 느끼지만 난 우리 집 앞 큰 길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봄이 되면 만물들만 꼭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노점에서 구두와 우산을 수리 하셨는데 아버지 손을 거치면 해진 구두도 생명력을 되찾고, 어깨가 축 처진 우산도 금세 날개를 쭉 펴 예쁜 동그라미를 그려곤 했다.

비틀어진 나의 두 다리와 가슴 쪽으로 말려드는 팔도 아버지의 손을 거쳐 쭉 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뇌성마비를 앓아 푹바로 걷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처럼 얼굴은 오른편 어깨로 자주 기울여진다. 이런 나를 엄마는 가슴 아파 하시면서도 부끄러워 하셨던 거 같다.

아버지가 닦아준 예쁜 구두를 신고 내 등짝보다 더 넓은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밥이 없어도 가방 속에 사이다 한 병으로 설렘 충만할 것 같은 소풍도, 넓은 운동장에 소사

탕 기계소리, 아이들의 함성 소리 속에 엄마 손을 잡고 운동장을 내달리는 가을 운동회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소소한 추억거리이지만 내게는 아무런 추억이 없다.

땅따먹기, 공기놀이, 구슬치기, 딱지놀이. 모두 동생을 통해서만 들었지 해본 적도 본 적도 없었다.

엄마는 내가 창피했던 걸까? 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꽃이 피는지 낙엽이 지는지 눈이 오는지 그저 방 안에서 내다보는 세상이 나의 전부였다.

집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에 난 아주 죽을 맛이다. 갑갑한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숨어들었는지 이제는 헷갈린다.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내 몸을 숨기기에 바빴고 엄마는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저 방문객이 돌아가기만을 숨죽여 작은 몸을 숨기기만 하면 된다. 언제부터 나는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던 걸까?

다락방 어둠은 내게 두려움과 함께 안락함을 동시에 안겨 주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움이 밀려오지만 가만히 눈을 감으면 내 마음의 눈은 더 또렷한 형체를 만들어내고 난 또 다른 나로 변하게 된다.

마치 신데렐라의 재투성이 옷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하는 것처럼... 톨립 모양 소매 끝에 촘촘히 박힌 보석 장식과 잘록한 허리선을 뽐낼 수 있는 한껏 부푼 치맛단 사이로 빛나는 크리스털 구두, 생쥐들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호박마차를 타고 왕자가 있는 신비한 궁전에서 멋진 파티에 참석하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며 스스로 잠이 든다.

12시가 되면 아궁이에 불 지피던 소녀로 변해버리는 신데렐라처럼 잠에서 깨어난 내 모습을 보면 왜 불행은 나를 비껴가지 않았을까 눈물이 난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가위로 영성하게 잘려 도끼 빛으로 막 빗기 편한 강충한 머리에 화

장실이 급할 때 얼른 해결할 수 있는 고무줄바지, 마당 나갈 때나 필요한 파란 플라스틱 슬리퍼 차림이었기에 TV를 통해 보는 내 또래 여자들이 누리는 사소한 일상들이 참 부러웠다.

빨간 장미빛 립스틱과 물결치는 긴 웨이브 머리는 내게 어울릴까? 미니스커트 밑으로 코가 뽀족한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걷는 기분은 어떨까?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내 마음에도 들어오리라곤 생각조차 해본일이 없었다. 참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 그 햇살이 내 마음에 봄을 만들어 낼 줄이야.

내 나이 서른이 넘어서야 나는 보이지 않는 틈 속에 구겨 넣은 내 마음도 꺼내고 마르고 비틀어진 내 몸을 숨겼던 우리 집 다락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세계대전 당시 2년 동안 다락방에 갇혀 지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 아내 보다 내가 훨씬 행복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인봉되어 있던 다락방 비밀 문이 열리자라도 한 걸까? 나와 같은 장애인이었지만 밝게 사시는 이웃 아주머니한테 몸이 아주 많이 불편한 아가씨가 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가엽게 여기셨는지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던 나의 세상의 첫 발은 그때부터 인 거 같다.

영천시지체장애인협회 이제근 지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수화기만 들고 있었을 뿐 난 침묵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미숙이에요...’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고 수화기를 쥔 내손이 땀으로 흥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후 지회장님과 만나게 되었다.

낮가림 심한 아이처럼 고개만 숙인 내게 지회장님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 말을 해야지 수화기만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하고 상냥하게 물어보았다.

그때 나는 눈물샘이 고장 난 것처럼 쉴 새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수줍음이 많아 말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난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게 의미 없던 달력이 가치를 발하기 시작했다.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며 기다릴 수 있어 좋았다.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한글공부도 시작하고 마음에 꼭 드는 남자친구도 만났다.

나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나들이도 갈 수 있게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OK를 보여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호탕한 웃음으로 맞장구 쳐주는 컴퓨터 난 식구들.

행복아! 넌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나 거기?

적당히 물이 예쁘게 빠진 청바지와 핑크색 운동화가 내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하고 가느다란 바늘을 손에 쥐고 한 땀 한 땀 십자수로 꽃잎을 만들어 갈 때는 흔들리는 내손이 참 기특하기만 하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 할 일이다.

이제 내 삶에 대한 불평도 어느 누구를 향한 원망의 구름도 싹 겹기로 했다. 지금 내 모습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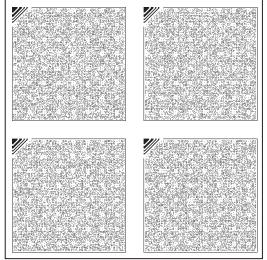
지금 내 소망이 있다면 꽃무늬 레이스가 달린 핑크빛 커튼과 포근한 침대가 놓인 내방과 내손으로 탄 커피를 나눠 마실 수 있는 2인용 식탁이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자립하는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고 더 이상 갑갑한 다락방에 갇혀 웅크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미숙은 더 이상 없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제 자신의 다락방 문을 열고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라고 꼭 말하고 싶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 다락방에서 벗어나 꽃처럼 활짝 피어난 나의 이야기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

발병 3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 이뤄져야

일교차가 큰 환절기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발병률이 증가하는 뇌졸중.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가 시작되고 올 겨울 유독 춥고 번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뇌졸중 적색경보가 켜졌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의 이상으로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갑작스럽게 운동장애와 감각장애, 발음장애, 의식장애나 사지마비와 같은 뇌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사망 혹은 반신마비와 같은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초기 발생시 빠른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평소에 괜찮다가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 증상이 느껴지고 보행장애가 나타나면 뇌졸중 위험징후인 뇌허혈 증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못알아 듣고 발음이 어둔해질 수도 있다. 심하게 어지럽고 한쪽으로

몸이 쏠리며 평소에 없던 심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갑

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좋아지기도 한다.

뇌졸중은 발병 후 3시간 내에 어느 종류의 뇌졸중인지, 뇌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손상된 것인지 파악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사망률을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발생하면 119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이라면 항응고제를 투여해 혈전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의 응고현상을 저지한다.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도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급성기 뇌경색에는 증상 발생 3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주사해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

뇌출혈의 경우 우리나라 환자는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혈압조절, 뇌압조절 등의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

다.

환자가 급성기의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가능한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한다. 재활치료는 뇌졸중으로 손상된 환자의 뇌신경을 회복하고 기능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치료법으로는 운동, 약물, 전기 자극 등이 있다. 대부분 운동신경기능 회복은 발병 후 첫 3개월 동안 이뤄지므로 뇌졸중 발생 3~6개월까지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심국제병원 뇌신경센터 이명종 원장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몸 상태를 파악하고 금연, 저염분 및 저콜레스테롤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높은 사람, 급한 성격의 사람이 뇌졸중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성격을 여유롭게 바꾸고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점점 시력 잃게 되는 녹내장

초기증상 없어 정기검진 받아야

녹내장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07년 36만3000명에서 2012년 58만3000명으로 매년 약 9.9%씩 증가했다.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66.1%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전문의 박종운 교수는 “녹내장은 많은 원인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환자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성녹내장의 경우 초기에 충혈, 안통, 두통, 시력저하, 눈부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초기에는 특이한 증상이 없어 40세 이상은 정기검진을 통한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내장으로 이미 손상된 시

신경은 현재까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기존에 남아 있는 시신경을 보존하기 위해 안압을 낮추는 3가지 방법으로 약물요법, 레이저요법, 수술요법이 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안압을 하강시키는 새로운 약물의 개발로 시신경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수술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녹내장은 대부분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

가 많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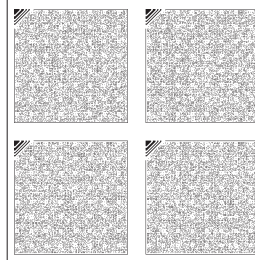
있다.

정기적인 검사로 자신의 시신경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생활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된다.

녹내장 진단을 받으면 금연해야 하며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타이트한 넥타이를 하면 안압이 상승해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감동의 선율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2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국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중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단독공연을 열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12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브람스 탄생 180주년을 기념

해 열린 이번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1부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시작으로 브람스가 자신의 곡 중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곡이라 알려진 ‘교

향곡 4번 e단조’ 공연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엔니오모리코네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주제곡인 ‘선라이즈 셋’, 뮤지컬 영화 ‘메리포린스’ 주제곡

‘침침체리’, 아일랜드 민요 ‘오, 대니 보이’, 만화주제곡 ‘그린 앤 블루’ 등을 연주했다.

이상재 음악감독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연주수준

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150여 차례의 공연을 진행하고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오케스트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는 있지만 실력은 오히려 뛰어난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연주회의 취지를 밝혔다.

숨은 일꾼 응원하기 위한 콘서트 열려

시각장애인밴드 ‘4번출구’의 락 공연

노사연 · 이무송 · 박지현 등도 출연



시각장애인밴드 ‘4번출구’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시각장애인밴드 ‘4번출구’가 12월 14일 서울시민청 바스 락홀에서 환경미화원, 소방관, 경찰관 등 우리 사회의 숨은 일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미 있는 콘서트를 개최해 화제다.

이번 콘서트는 숨은 일꾼을 응원하는 것 외에도 실명퇴치 기금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장애인식 개선 등을 목표로 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콘서트는 개그우먼 이성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4번출구’는 열정적인 락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가수 노사연, 이무송, 남성그룹 V.O.S의 전 멤버 박지현, 포크가수 박학기, 박강수 등도 출연했다.

‘4번출구’와 함께 콘서트를 공동주관한 강남장애인복지관 정원일 담당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4번출구’의 리더 한찬수씨는 “장애인 문화예술이 그냥 장애인만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더욱 많은 이가 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가 후원했다.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건립되면?

문화예술 대중화 · 창작전문화 등 효과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에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는 12월 18일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문화예술의 대중화, 창작의 전문화, 창작의 공간화, 문화예술의 직업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창작계획 및 실행, 전문문화예술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소통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박귀희 회장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예산 150억원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될 수 있도록 공개 청원서를 내는 등 센터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문화예술센

터 건립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문화융성위원회 과업으로 조기 실시하면 장애인복지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아름다운 선물로 장애인 복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스토리텔링으로 소개돼 눈길을 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그룹 사운드 리더가 센터에서 열심히 연습해 중앙 무대에 진출한 사례,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 장애인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토리텔링 교육을 받고 공연 작가로 성공한 사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나 미술학원에 근무한 경력 밖에 없는 사람이 센터에서 아트워커로 활동하다 문화적 기업 사장이 된 사례, 동송동에 직장이 있는 회사 간부가 센터 공연장에서 공연을 본 후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례 등이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돼 재미와 함께 설득력을 주고 있다.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 내년 3월 개막

대표선수들 막바지 훈련 열기 '후끈'

내년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릴 동안 열리는 '소치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돌입했다.

50여 개국에서 1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등 5개 종목에 걸쳐 치러진다. 우리나라에서는 5개 전

종목에 27명의 선수, 15명의 임원이 참가한다.

지난 '2010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휠체어컬링에는 8명(선수 5명, 임원 3명)이 출전한다. 휠체어컬링 대표팀은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유티카 컬링 전용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미국 국가 대표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최적의 전

략과 전술을 구성하는데 힘을 쏟았다.

아이스슬레지하키 대표팀은 23명(선수 17명, 임원 6명)으로 꾸려져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훈련에 몰입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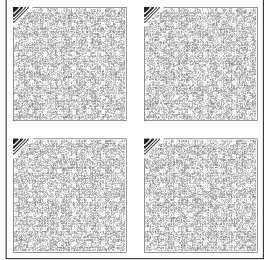
6명(선수 3명, 임원 3명)으로 구성된 알파인스키 대표팀은 11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네

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해외전지 훈련을 진행했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은 총 5명(선수 2명, 임원 3명)으로 12월 7일까지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국내 강화훈련을 실시했으며 내년 1월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소치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소리로 읽는 새보람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동계종목 추가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선수별, 종목별 특성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과 해외 전지훈련 지원으로 훈련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IPC 집행위원에 나경원 당선

150표 중 99표...24명 가운데 최다 득표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부위원장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

나 부위원장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6차 IPC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11월 24일 집행위원 투표에서 150표 가운데 99표를 얻어 전체 출마자 24명 중 최다 표를 획득, IPC 집행위원에 선출됐다.

나 부위원장은 앞으로 4년 동안 IPC 미션 제정 및 비전 실현, IPC 규정 승인, 회원국 승인 및 제정, IPC 상임위원회와 평의회 위원장 역할부여 및 수행, 각종 사안에 대한 투표권 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 부위원장은 "장애인올림픽 무브먼트의 확산을 통해 도전과



나경원 신임 IPC 집행위원(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새롭게 선출된 IPC 집행위원회 임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극복의 정신을 공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

린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IPC가 설립된 1989년 88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 조일묵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2009년에는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항숙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장애인 운동선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수영의 이인국·보치아의 최예진 선수

장애인 수영 선수 이인국(지적장애, 17세)과 보치아 선수 최예진(뇌성마비, 23세)이 12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3 대한민국 인재상'은 매년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 100명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포상이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인국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 2011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4관왕,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출전, 201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관왕 기록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서 배영 100m에 출전해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나사렛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예진 선수는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보치아 금메달리스트로 보치아 종목에서 여성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장애인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최예진 선수는 현재 충청남도 보치아 실업팀에 소속돼 훈련을 하고 있으며 평소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학교에 기부하는 등 따뜻한 선행도 실천해 오고 있다.

아산시장애 어울림배드민턴대회 성료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해 의미 더해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과 아산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회장 엄신호)가 공동주관 한 '제2회 아산시장배 어울림배드민턴대회'가 11월 24일 호서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장애인·비장애인 선수가 함께해 의미를 더한 이번 대회는 휠체어, 좌식, 지적장애 등 3부

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그 결과 휠체어 부문 남자 단식 1위는 천안시장배인종합체육관 임동주 선수, 남자복식 1위는 대전장애인배드민턴협회 정성경·김광수 선수가 차지했다.

좌식부문 남자 복식 1위에는 천안시장배인체육회의 유영건·김성모 선수, 여자복식 1위에는 아산시배드민턴협회 지현

미·홍기분 선수, 혼성 4인조 1위에는 부산좌식배드민턴클럽 박진영·문신아·이미경·유상곤 선수가 올랐다.

지적장애 부문 남자 복식 1위는 홍성군장애인체육회 김성지·양현준 선수, 여자 복식 1위는 광주광역시 정다진·정초롬 선수가 차지했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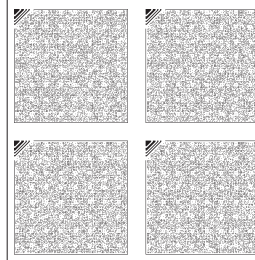
제2회 아산시장배 어울림배드민턴대회에서 좌식 배드민턴 경기가 열리고 있다.

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통합의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

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아산시장배인체육회가 주최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겪었다고 해명했다.

추모식에서 연단에 올라 수화통역을 하는데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이 혼미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자신은 가짜 수화통역사가 아닌 자격을 갖춘 뛰어난 수화통역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12월 17일 정신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병원 측에서는 즉시 입원 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델라 추모식 가짜 수화통역사 논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진상 조사 착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서 영타리 수화로 논란을 빚은 수화통역사(오른쪽). (사진 : CNN)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에 참석한 가운데 12월 10일 열린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 가짜 통역사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 11일 CNN 등 주요 외신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서 수화통역사가 영타리 통역을 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아연맹 브루노 드루첸 사무총장은 추모식 당일 수화통역사로 나선 사람의 수화는 아무런 의미 없는 가짜 수화라고 폭로하며 이 통역사가 1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수화 전문가와 청각장애인들도 그의 수화는 영타리라고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부 언론들이 문제의 수화통역사가 과거에 살인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수화통역사가 테러범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사태가 커지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사틸레 문화예술부 장관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수화통역사는 자신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추모식 당시 환각 증세를

다운증후군 청년 대학 합격 확인 영상 화제 전 세계 네티즌들, 주인공에 응원 메시지 전해

대학 합격 통지서를 확인하는 다운증후군 청년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동영상 속 주인공은 미국 사우스 캐롤리나 청년 리온 홀콤(20세). 염색제 이상으로 정신지체, 신체기형, 성장장애 등을 일으키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는 최근 클렘슨 대학으로부터 라이프 프로그램 과정 입학 허

가를 받았다.

라이프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들이 2년 동안 대학 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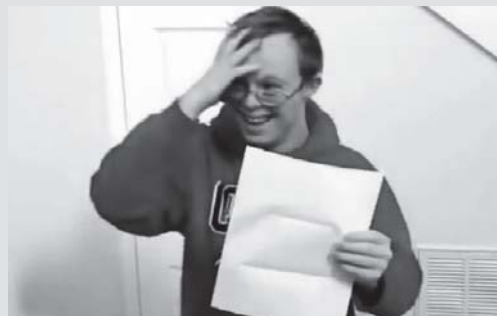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홀콤이 대학 합격 소식을 접하는 순간을 그의 부모가 포착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학교 측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조심스럽게 열

어보고 합격 사실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 부모가 합격 축하 인사를 건네자 활짝 웃어 보이는 홀콤의 모습이 담겨있다.

12월 6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해당 영상은 12월 22일 기준 조회수가 130만을 넘어섰다.

많은 네티즌들은 댓글 통해 홀콤의 대학 입학 축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리온 홀콤이 대학 합격 소식을 접하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 youtube)

한편 홀콤이 내년부터 다니게 될 클렘슨 대학교는 사우스 캐롤리나에 위치한 공립 종합대학교로 지난 2011년 미국 시사주

간지가 선정한 미국 공립대학 순위에서 2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위험에 처했던 시각장애인 윌리엄과 그를 구한 안내견 올랜도. (사진 : The New York Times)

시각장애인 주인 구한 안내견

미국에서 안내견이 시각장애인 주인을 구해 화제다.

12월 18일 미국 뉴욕 타임즈,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윌리엄(61세)은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뎠다 선로로 추락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안내견 올랜도가 선로로 뛰어 내렸고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열차는 올랜도를 보고 멈춰 설 수 있었다.

윌리엄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랜도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한 것이다.

윌리엄은 기자회견에서 선로로 떨어진 후 기억을 잃었지만 올랜도가 자신을 선로 밖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곁을 지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그는 8년 동안 함께해온 올랜도가 내년에는 11살이 되어 안내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올랜도와 헤어져야 한다

며 여건만 된다면 올랜도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러한 윌리엄과 올랜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윌리엄이 앞으로 올랜도와 한 식구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윌리엄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올랜도와 헤어지지 않아도 돼 기쁘다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편의증진법 개정을 고대하며...

이번 호에서는 그 동안의 편의증진법 개정언행을 살펴보고 최근 국회에 이송된 정부의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분석해본다.

올해는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만 1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15년 동안 단편적으로 세 번의 개정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법률 개정은 단 한번으로 10년 전인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현재 국회에 이송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초의 법률개정은 법률 시행 후 7개월만인 1999년 1월 12일에 이루어졌다. 최초 개정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의 설치 의무가 권장으로 바뀌었다.

최초의 법률 제9조 제2항에서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이 제8조 제2항으로 옮겨져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권장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현재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는 설치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사실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안내표지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 개정은 2003년 12월 31일에 행해졌다. 이때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개정됐다.

제1조와 제4조에서 편의시설의 정의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란 말이 삭제됐다.

이는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수화통역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기존의 정의에서는 수화통역은 편의증진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오류가 있어 이 문구를 삭제하게 됐다.

제12조의 2에서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의증진심의회를 신설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신설했다.

제1조와 제4조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란 문구를 삭제하면서 제16조의 2를 신설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즉 수화통역과 인적서비스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이 재원인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되지 않아 기금이 고갈된 관계로 폐지되었다.

또한 제28조의 이행강제금에서 그 사용용도는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그리고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사용용도는 지자체의 잠수입으로 처리되고 그 사용용도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인 세 번째 개정은 2012년 5월 23일에 개정된 것으로 제26조의 양벌규정을 완화해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 하였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번 개정내용이었다.

위와 같이 세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장애인의 변화된 일상생활을 반영한 개정안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많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원칙이 전제되어야만 그 하위법령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013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자.

첫째, 법률제명을 ‘障碍人·老人·妊娠婦등의便宜増進保障에관한法律’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글화와 한글의 띄어쓰기를 적용했다.

법령제명은 그동안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전부 붙여 쓰는 경우가 관행이었으나 법제처에서 법령 제명이 한글맞춤법과 일치하지 않고 법령의 한글화로 인한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띄어쓰기 기준안을 마련하여 그 시행을 권고해 왔다. 그리고 법령한글화는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둘째, 제9조의2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제도를 신설해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시설주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 때 보면 검토나 현장확인 등을 함에 있어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된다면 법적인 근거에 의한 편의시설의 적합성 심사가 이루어져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현재 건축법 및 편의증진법 체계상 건축법 제29조 공동건축물에 대한 특별규정과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 2 학교시설의 건

축등에 의거하여 일반건축물에 대한 시·군·구청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번 개정으로 이 모든 특례등 건축물에 대하여도 편의증진법의 기준적합성 심사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셋째, 제10조의 2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인증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를 위한 BF인증제는 법적 근거에 실시되는 것과 달리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만으로 동제도가 운영되었던 것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향후 이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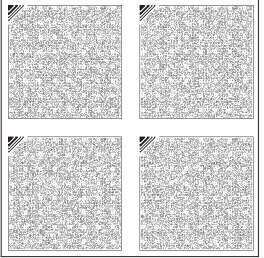
넷째, 제14조의 2에 시설주 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시설주 또는 건축사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을 편의시설 확충에 걸림돌의 한 원인으로 꼽았었다. 이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시킴으로써 편의시설이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건축주나 건축물에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그 설치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섯째,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의 주체를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과 교통관련 공무원으로 지자체장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속대상이 되는 주차장이 건물에 부설된 부설주차장이라는 점, 민간소유의 건축물이라는 점, 또한 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의 경우 시간적·공간적으로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등에 비추어 이는 그 이용자인 장애인단체에게 제29조에 위탁 업무에 추가하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제도일 것이다.

여섯째, 제29조에는 제9조의

소리로 읽는 새보람



2에 의한 기준적합성 심사와 제22조에 의한 검사업무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현재 건축업무는 건축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는 장애인복지과(또는 사회복지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두 부서 어디에서도 그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인적자원과 전문성을 키운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된 이후의 산물로 보여지며 환영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연계되어, 제29조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개정안 제25조의 2 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처벌의 내용으로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 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청사, 사후수뢰) 및 제132조(알선수뢰) 죄로 처벌된다. 이 모두 공무원의 엄정한 법적양심에 따른 임무 처리를 요하는 신분법이다.

전체적으로 법률개정안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필요한 요소는 담았다고 본다. 향후 이 법률의 개정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장애인 등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정이나 기준들이므로 하위법령의 개정에는 이용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더 많은 의견이 취합되어 세밀하고 필요한 편의증진법령이 되어, 장애인등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현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에 적합한 법령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지체장애인지원시설증진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웅 언 군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쿨하게 퇴사하는 방법

1개월 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통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우려(憂慮)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사(勞使)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한 지체5급 장애인인 조 모씨는 2012년 6월 1일 입사했으며 사업주와 둘이서 근무하고 있었다. 개인사정으로 2013년 1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피상담자는 계속해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후임자를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는 말만 되풀이했다. 만일 한 달 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사실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민법 제660조에는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된다고 되어 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일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났지만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우려(憂慮)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배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또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 시 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을 '30일전 통보'로 정하고 있고 그 약정에 따라 30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민법상 유효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소송을 통해 하고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하게 마친다면 쿨하게 퇴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A) 정부에서 정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한 달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Q)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돈을 버는 사람도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벌지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가구)은 누구든지 수급자격이 됩니다.

Q) 소득산정 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나요?

A)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9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와 계약한 월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수급신청하면 전부 최저생계비 만큼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 신청한다고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줍니다.

Q) 근로무능력자란 누구인가요?

A) 근로무능력자란 나이가 많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나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됩니다.

Q) 근로무능력자가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근로무능력자는 65세 이상 노인, 1급~4급의 장애인, 20세까지의 고등학생, 공익근무요원, 직업훈련을 받은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중증 질병을 앓는 자를 간호하는 자, 장애인의 보호자 등입니다.

Q) 대학생은 근로무능력자인가요?

A) 대학생은 근로무능력자가 아니라 근로의무자이나 학업으로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 의무를 유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

면 일부를 소득공제 한 후 가구소득으로 산정합니다.

Q) 부양의무는 장남이 제일 많이 하나요?

A) 아닙니다. 장남, 차남 순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 순서입니다.

Q)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가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출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집에 건강한 근로능력이자 있으므로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취업자 간담회 개최

지장협, 근로자 고충 파악 및 대안 제시



2013년 취업자 간담회'에서 전문 강사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장협은 '활기찬 직장인'을 슬로건으로 11월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우소에서 '2013년 취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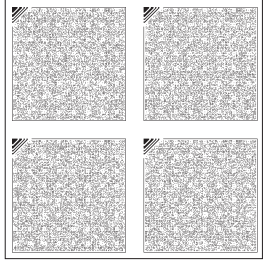
장애인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지장협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고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해 '웃음을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 근로자는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마인드로 직장생활에 임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해야 할지 많은 팁을 얻었다"고 전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취업자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의 직장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장애인들의 멘토 모임 출범

'M 클럽' 발대식...장애인 취업 멘토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공단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선배 장애인들의 멘토 모임인 'M(mentor)클럽' 발대식을 12월 16일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M클럽'은 직장재직 중인

선배 장애인들이 취업과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자발적 모임으로 총 85명으로 구성됐다.

'M클럽' 회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후배 장애인들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멘토로 활동하게 되며 공단 사업에 대한 자문과

보, 공단 취업지원프로그램 강사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이날 발대식과 함께 선배 장애인들이 멘토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과 책임', '멘토링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이사장과 'M 클럽' 멘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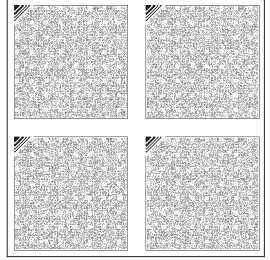
또한 공단은 앞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활동 내용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클럽' 활동을 희망하거나 'M클럽' 멘토링이 필요한 장애인은 공단 본부 또는 지사(☎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 취업정보

	업종	업체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경비직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시 강북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13만원	4대보험	02-2289-4321
2	사무직	(주)서울기업금융센터	서울시 송파구	무관	무관	사무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단순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상음향사업소	경기도 오산시	50세 이하	남	배달 및 CCTV조립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4	경비직	패트롤 포컴	서울 영등포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33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미화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노원구	65세 이하	여	아파트 미화직	월 8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생산직	로알 라이프	서울시 구로구	무관	무관	미싱 보조직	월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7	미화직	(주)인영종합관리	서울시 강북구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9	상담직	케이디텍	서울시 은평구	45세 이하	무관	상담직	월 120만원 이상	4대보험	02-2289-4322
10	미화직	(주)취세택	경기도 부천시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9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1	주차관리	(주)청인시에스 비즈니스클로벌	서울시 강남구	40세 이하	남	발렛파킹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2	단순직	미래환경	경기도 용인시	연령무관	무관	재활용 분류직	월 9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3	생산직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서울시 관악구	30세 이하	남	사무직	월 102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4	소독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0세 이하	무관	소독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5	단순직	(사)해든	서울시 금천구	55세 이하	남	비데 부품 단순 조립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6	미화직	대영종합관리	인천시 중구	65세 이하	무관	미화직	월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7	생산직	청밀	경기도 용인시	무관	무관	농산물 세척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8	단순직	샘물산업	경기도 남양주	40세 이하	남	단순직	월 90만원	4대보험 미가입	02-2289-4321
19	경비직	모아안전시스템	서울 강남구	68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0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 모습.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 열려

지속적 나눔 실천하는 중식당 대표 눈길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 모습.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북)이 문경 산 북면에 위치한 중식당의 후원으로 12월 4일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중식당 고덕환 대표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장면 나눔행사에 참여해왔다.

고덕환 대표는 "장애인들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장북 박종훈 관장은 "장애인들이 위해 자장면을 후원해준 고덕환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모아질 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운 겨울, 온정 함께 나눠요"

경북지장협 봉화군지회, 장애인에 김치 전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지회장 김석진, 이하 경북지장협 봉화군지회)가 11월 27일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경북지장협 봉화군지회 회원들은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김치는 경북지장협 봉화군지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재료로 만들어져 의미를 더했다.

경북지장협 봉화군지회 김석진 지회장은 "추운 겨울 지역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1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3년 11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태원, 김환경, 남용원, 도지방개발공사,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서동녀, 선병욱, 오희경, 우병훈, 우지현, 원종빈, 유재복, 육근록, 윤채환, 이은정, 이정은, 이태훈, 임재중, 자체전출, 장주자, 정다은, 정산용,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하정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해피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
18				19		20	
		21	22			23	★
					24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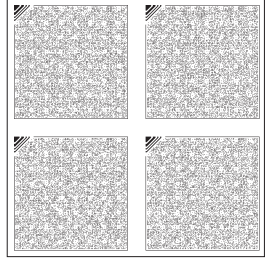
1. 손을 보호하거나 추위를 막기 위해 손에 끼는 물건.
3. 기독교도를 상징하는 '十' 자 모양의 표.
6.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따위의 소리 부분.
7. 구기자나무의 열매. 해열제와 강장제로 쓴다.
8. 사람이나 동물의 목을 포함한 머리 부분.
9. 9명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9회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는 구기 경기.
11. 목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13. 웅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
17. 응답하여 인정함.
18. 러시아의 대표적인 술.
19. 한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

21. 텔레비전 등에서 방송되는 극.
23. 슬퍼하고 서러워함.
24.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세로열쇠]

2. 조선 고종 31년(1894) 7월부터 고종 33년(1896) 2월 사이에 추진되었던 개혁 운동.
3. 음력 보름날 밤.
4. 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로 장롱, 책장과 같이 비교적 큰 제 품.
5. 금박을 올리거나 금물로 써서 금빛이 나는 글자.
8. 학교나 회사에서 학생이나 사원에게 잔값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
10. 비굴하게 남의 비위를 맞춤.
12. 상품,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해 일정 기간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카드.

소리로 읽는 새보람



14. 두더지과의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15.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
16. 적의 공격을 알리기 위하여 만든 신호.
19. 갈로 음식의 재료를 썰 때 밑에 받치는 것.
20. 백제 성왕 16년(538)에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웅진에서 천도한 백제의 수도.
22.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 말린 즉석식품.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인정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사회 통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

11월호 정답

자립 생활

당첨
자

김진관 경북 포항시 상도동
염미영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이동현 경기 고양시 식사동

다른그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3년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워크숍'에서 중앙센터 김광환 센터장이 '편의센터의 위상'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을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만을 엄격히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넬름, 일레름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류물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얼마전에
장애등록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상담 될까요?

물론이죠!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는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렵습니다.
상담하고 싶은데요.

네에 민원상담실에서는
장애인생활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정보를
찾고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민원상담실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중인데요
제게 맞는 일자리
알선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민원상담실에서는
장애인취업알선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월~금)

· 편의시설상담 : 02)2289-4343

· 전화상담 : 02)796-4280

· 홈페이지상담 : www.kappd.or.kr

· 취업상담 : 02)2289-4321~4322